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설 명절 대비 전통 시장 화재예방 합동점검

부안군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 시장 화재 예방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0일 부안상설시장과 읍포상설시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안군 부군수, 부안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장상인회장, 분야별(전기·가스·소방)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겨울철 전열기구 및 난방기 사용실태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자율방재체계를 강조하며 △소방시설 작동 및 관리실태 확인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실태 △소방통로 확보 협조 안내 △상가 내 가스, 전기 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며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장 조치했고 일부 미비점은 전문업체를 통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여성농·어업인 생생카드 신청 접수

정읍시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간 15만 원의 생생카드를 지급한다.

시는 오는 2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생생카드(구·생생바우처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건강, 문화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이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농외소득 3700만원/년 미만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류 검증작업을 완료한 후 4월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될 경우 선정자가 정한 농협지점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지원 금액은 연간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 추진”

고창군, 고창읍·홍덕면·부안면 등 나눔대화 8곳 진행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군정계획 보고 및 군민의견 경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14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활력고창 나눔대화’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22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홍덕면과 오후 부안면까지 8개 읍·면 방문을 마쳤고, 나눔대화는 다음달 6일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22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홍덕면과 오후 부안면까지 8개 읍·면 방문을 마쳤고, 나눔대화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까지 진행된다.

심 군수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군정계획을 보고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의견도 경청했다.

군민들도 폭설과 한파에도 준비된 좌석을 가득 메우고, 통로에까지 자리 잡으며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산면에선 “해마다 잠마찰이면 흉과 자갈들이 썰러 내려와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준설작업을 건의했고, 상하면 한 주민은 “모암마을과 잠암마을회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인구유입정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심 군수는 현장에서 군민들의 군정 상황에 관한 고견과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틈틈이 개인수첩에 메모하는 열정을 보였다. 고창군은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 여부와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에게서 읍·면발전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고, 군민의 호된 지적도 함께 이어져 정말 허심탄회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행안면, 2024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성료

새마을 부녀회 회장 외 9명 고향사랑기부금 380만원기탁 등

부안군 행안면(면장 임병길)은 30일 행안다목적체육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사회단체장 및 행안면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에 앞서 부안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안마을 변곡용 외 16명, 행안면 새마을 부녀회 강영재 회장 외 9명이 고향사랑기부금 380만원을 기탁해 고향을 위해 뜻을 모으며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참석한 면민들은 임병길 행안면장으로부터 2024년 행안면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 군정 주요성과 및 2024년 군정 운영방향이 담긴 동영상 시청해 올 한 해의 면정 및 군정 구상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견인장래,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시간에 면민들의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부안군 행안면은 30일 행안다목적체육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사회단체장 및 행안면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받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관동경로당 등 경로당 2개소 및 사업장 2개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행정을 끝으로 2024년 열린소통대화는 마무리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바쁘신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정읍시, 안전도시 구축 박차... 홍보·교육 강화

정읍시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 50억 미만 건설공사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에 시는 지역내 사업장 경영책임자와 시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며 공단 밀집지역 및 시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정읍소식21, SNS 채널, 전광판, 이·통장회보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혼선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 주요 사업지 현장점검

김철태 고창부군수가 고창군 주요 사업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김철태 부군수는 지난 29일 심원면 염전 부지를 방문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면밀히 보고를 받으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심원면 만동리 염전에서는 고창군 백년대계를 책임질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비 98억원을 지원받는 노을 생태 갯벌플랫폼 조성사업과 작년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고창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119억원 등 총 17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위해 진행되는 고창군 역점 사업이다.

이 밖에도 김 부군수는 해리면 노을대교 건립사업 대지를 찾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샘고을시장 화재예방 민·관 합동점검 실시

정읍시는 30일 샘고을시장 일원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만들기’를 위해 시행됐다.

이날 합동점검은 송금현 부시장을 필두로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 샘고을시장 상인회, 민간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종 소방시설과 전기, 가스, 건축물의 적정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또한 소방차 진입차로 확보를 위해 시장 내 상품진열의 제한선인 고객선 지키기와 청결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

인도 병행했다.

또한 상인들에게 전열기구 사용방법, 전기시설 부근 가열물질 보관금지,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정기적인 가연성 분진청소 등 화재예방 요령도 안내했다. 이날 점검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추가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상인의 자발적인 화재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금현 부시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상인 스스로 점포 내 노후 전기설비와 조리 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고, 시에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소방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